'사빌 한국 친구들'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팔레스타인의 고난에 응답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에 동행하기 위해 '사빌 한국 친구들'(Friends of Sabeel Korea)의 창립을 선언한다.

팔레스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어나고 전해진 땅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을 이어온 거룩한 땅이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랜 점령과 차별, 폭력과 전쟁, 강제 이주와 인도주의적 위기 가운데 존엄한 삶과 평화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억압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와 공동체의 터전을 지키며 정의와 평화를 증언해 왔다. 1989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빌(Sabeel, 아랍어로 '길')은 에큐메니칼 해방신학운동으로서, 성서의 말씀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점령과 억압에 맞서 당당히 정의와 평화, 평등과 화해를 추구하였다.

사빌이 걸어온 길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신앙의 과제이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두드리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사빌의 친구가 되어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기도와 행동으로 연대하고자 한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증언에 귀 기울이며, '사빌 예루살렘'의 사명과 비전을 한국교회와 나눈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모든 사람이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날을 위해 '사빌의 기도 물결' 등 기도 운동에 동참한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정의, 평등,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공동체들과 함께 힘쓴다.

📁 우리는 세계의 사빌 친구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인 정의와 평화 운동에 참여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이 어느 민족의 승리나 다른 민족의 패배를 뜻하지 않음을 믿는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누리며, 정의와 상호 존중 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희망한다.

이제 '사빌 한국 친구들'은 팔레스타인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길을 같이 걷는 친구로서, 기도하고 배우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11월 12일

사빌 한국 친구들 창립회원 일동

Friends of Sabeel Korea (FOSK)

사빌 한국 친구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빌 한국 친구들(약칭은 "사빌 친구들"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Friends of Sabeel Korea(약칭은 "FOSK"이라 함)이라고 칭한다.

제2장 목적

제2조 (목적과 활동)

본회의 목적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창립한 에큐메니칼 해방신학운동 조직인 '사빌 예루살렘(Sabeel Jerusalem)'의 사명과 비전을 확산한다.

2.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과 해방신학, 그리고 기독교 시온주의에 관해 연구하고 교육한다.

3.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사빌 기도 물결' 등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4. 팔레스타인의 정의·평등·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공동체 등과 협력하고 연대한다.

5. 전 세계 사빌 친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정의·평등·평화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제3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1. 운영위원은 5~6명으로 하며, 위원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운영위원장은 '사빌 한국 친구들'의 대표가 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5~6회의 정기모임을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2/3의 동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자발적인 기여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

본 규약은 창립일부터 시행하며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026년 11월 12일

사 빌 기 도 문

사랑과 정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합니다.

그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들의 신앙과 성경이 배제나 증오, 혹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해방의 원천으로 남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며 불의에 맞서고, 우리의 기도와 행동의 중심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점령을 종식하고, 정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소서.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정의를 위한 여정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국가와 신앙 전통 속에서도, 비폭력을 견지하고 서로 적이 되기를 거부하며, 대신 친구가 되기를 선택하게 하소서.

모두를 위해 정의와 자유, 그리고 존엄성이 실현되게 하소서. 아멘.